

Date: 6 Elul 5786 (August 19, 2026)

Torah Portion: Ki Tetze

Topic: 자비와 연합, 제 2 부

'שָׁנָא חֵנָם' (썬알 힌남) 곧, '이유없는 강한 미움'이 왜 그토록 파괴적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사렛의 여호슈아께서 승천하신 후 40 년이 지난 시점에서 로마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불타버리게 되었던 제 2 성전은, 그 당대에 땅에 남게 하신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영으로 갈라 찢던 것이 그 이유였다고 구전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라임, 참 평화의 도성은, 모두를 영생인 진리로 연합하게 합니다. 증오는 하나로 맺어져야 될 빛의 자녀들의 관계들을 갈라놓는 반면, 예루살라임의 중심 성전은 그들을 모았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의 영에의 한 내부 분열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임재의 거룩한 성소의 능력인 평화의 영적 원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뒤이어 벌어진 이방인들에 의하여 불에 탄 '성전의 물리적 파괴'는 이미 영적으로 이스라엘 집안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내적인 영적 분열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결과로써 이어진 유배 생활은 이러한 분열을 더욱 구체적으로 심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로 흩어졌고 예루살라임은 황폐해졌으며, 백성들은 단순히 건물을 잃은 것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선택 받은 한 민족적 온전함과 소속감을 잃은 것으로 인하여 애곡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루살라임 도성의 재건은 단순한 건축적 복구를 초월하는 그 이상의 광대한 뜻을 갖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시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후(이사야) 선지자께서 상세히 예언하셨듯이, 예루살라임, 평화의 도성은 다시금 자녀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고,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듯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오랜 단절의 경험은 재회의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을 얻기까지는 더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지도력을 발현하는 공통된 핵심력없이 민족적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라임의 회복은 다원 왕조의 회복과 직접 결부되어 있습니다. 마쉬아흐(메시아)께서는 여호와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완전히 회복된 백성을 만민 가운데서 골라내어 예루살라임으로 모으고 이끄십니다. 이때야 비로소 '완전한 위로'가 완성됩니다. 완전한 위로는 돌판에 새겨 주셨던 원조언약과 심장에 새겨 주신 갱신(새) 언약으로 여호와 엘로힘께 부종하는 백성, 예루살라임 도시,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의 왕국이 하나로 연합되며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어미 새를 날려 보내라는, 외면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토라의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현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늘로부터 자비를 얻는다" (샤바트 151b). 마하랄(Maharal)은 자비가 "연결"하며 소생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피조물의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 반응할 때, 그는 무관심한 태도로 남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그 고난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존재의 물리적 영적 상태를 자신의 일과 같이 여깁니다. 따라서 자비의 속성은 소외에 맞서며, 연합이라는 더 큰 영적 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정함은 그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무정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분리해 버립니다.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육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여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정함이란 단순히 고통을 주려는 욕구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 즉 다른 상대의 존재가 여호와와 모든 창조의 세계 안에서 그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물리영적인 관계 원리는 '실루알 하켄 (어미 새를 둥지에서 쫓아내고 새끼를 취하라!) 하신 계명에 담긴 여호와 창조주의 의도를 밝혀줍니다. 누구든지 둥지를 발견했을 때, 토라는 눈앞에 있는 것을 무분별하게 모두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토라 계명은 사람이 수레바퀴와 같이 달리는 주어진 "자연적" 환경에서도, 잠시 멈추어 잠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미와 새끼 사이의 유대를 인식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비록 어미새로부터 그 새끼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의 자유의지적 권한은 바른 경계선 안에 있고 그 안에서만 지속하는 살롬(온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여호와와 모든 창조물 안에 존재하는 관계에 있어서, 비록 작은 미물처럼 보이는 존재라도 그 생명력을 주신 창조주의 인애와 자비하심에 민감하도록 영적 훈련을 시키시는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사람의 마음을 교육합니다. 어미 새를 쫓아 보내는 사람은 개인적 이익이나 소유권에서 다른 피조물에 대한 내면적인 관심을 먼저 섬세히 드러냅니다. 다른 생명체에 대한 배려로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여호와와 토라를 통하여 체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른 창조의 세계와 그 자신의 내면에 심어진 연민, 연결, 그리고 연합의 자질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드라시에서 '실루알 하켄'을 "엘리야 및 구원"과 연결 짓는 이유입니다. 아주 작은 차원이더라도, 연민을 실천하는 사람은 "구원이 기초하고 있는 바로 원리"와 그 자신을 액하드(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생명말씀으로 맺어진 관계에 부어 주시는 긴밀한 유대력을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엘리야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깨어진 유대 관계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보내 지셨습니다. 그는 무관심을 거부합니다. 예루살라임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모읍니다. 그는 연합을 실천합니다. 마쉬아흐 (메시아) 여호슈아께서는 "회복된 다윗의 왕국"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 아래에서 한 민족을 여호와께로 완전히 하나되게 하시며 영원한 연합으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어미새가 마련한 둥지는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예표적 교훈(토라)입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연약한 생명체를 마주쳤을 때, 그는 자신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로부터 발상하는 자비가 자신의 행동을 주관하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결정처럼 보일 수 있는 오늘의 크고 작은 선택이, 바른 길을 걷는 한 민족 전체의 영적 선택과 같은 것임을 결과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는 그 자신의 독점적 이득에 우선한 권위욕, 물욕등으로 취한 네웨쉬(영혼으)로 끌려 내려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전능자께서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 가운데 담아 두신 인애와 자비를 통한 연합력을 인지하고 미덕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살롬

A Daily Bread

ביי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내가 네 엘로힘(권능;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 46:10